

호남소외 끝낼 변환점... 균형예산·탕평인사로 답하라

이정현 효과' 정치권 흔들다
 ● 다바꿔라 새정치연합
 ●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
 ● 반응하라 TK·PK

호남 차별→저항적 투표
 지긋지긋한 악순환 끊어
 대화합 정책으로 화답해야

보수정당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호남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지역주의 전쟁을 해왔다. 근본 원인은 보수정권의 호남 차별과 이에 대한 호남의 저항적 투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10년의 민주정부 이후 치러진 2002년 대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광주에서 3.6%, 전남 4.6%, 전북 6.2%를 득표했다. 철저한 보수정당 외면 투표였다. 물론 당시 이회창 후보는 호남을 배제한 선거운동을 했다. 5년후인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호남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에 이명박 후보는 광주 8.6%, 전남 9.2%, 전북 9.1%를 득표했다. 호남인의 이 후보에 대한 기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보수정당의 득표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호남 차별 정책을 폈다. 1기 내각의 호남출신 장관은 단 2명.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5년 동안 이명박정부에서 호남은 철저히 대한민국에 없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20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호남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역 탕평정책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은 광주 7.7%, 전남 10.0%, 전북 13.2%로 나타났다. 아쉬움이 컸지만 한나라당 이후 처음으로 호남에서 두자릿수 득표율(10.5%)을 기록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1년 6개월여 동안 지역탕평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 첫 내각에 호남 출신 장관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그 2명도 호남출신이라기 보다는 호남에 본적만 둔 서울사람이었다. 또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요직은 영남이 싹쓸이었다. 4대 권력기관장에도 호남 출신은 없었다.

이에 대한 호남의 분노는 깊어졌지만 박근혜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남 무시' 전략을 고수했다.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호남출신 장관은 단 1명으로까지 줄었다.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호남은 예산에서 더욱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기업



수확 코앞...한숨의 1년 농사

3일 보성군 벌교읍 월정마을에서 배농사를 짓는 양승우(72)씨가 자신의 과수원(1만6528.9㎡)에서 망연자실한 채 강풍으로 떨어진 배를 주워 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보성엔 377.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으로까지 이어져 호남 출신들은 숨 쉬고 살기 힘든 분위기다.

그런데도 7·30 재보선에서 순천·곡성 주민은 이정현 전 흥보수석을 선택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정현 전 수석 나이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로 풀이하고 있다. 다시한번 탕평을 호소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선거 직후 "호남인들에게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겠다"며 "지역갈등 조정, 편 가르기 정치는 단호히 배격하고 박 대통령이 주창한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자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화답이라는 게 지역민들 대다수의 반응이다. '박근혜 복심(腹心)'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첫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만큼 이제 박근혜정부가 인사 탕평과 예산 지원으로 화답할 때라는 것이다.

순천시청의 한 관계자는 3일 "영남정권의 계속된 무시에도 불구하고, 순천이 이정현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을 지켜주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50mm 물폭탄...3명 사망·실종, 농경지 1720ha 침수

광주·전남 태풍 피해 속출

강력 태풍 '할롱' 북상 비상

폭우를 동반한 태풍 '나크리'(NAKRI)가 북상하면서 지난 사흘간 광주·전남에 최고 450mm의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주택·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나크리는 3일 오후 3시 열대저압부로 약화, 서해상에서 소멸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광양 백운산에 최고 450mm의 비가 내렸으며, 이어 ▲보성 377.5mm ▲고흥 368.5mm ▲순천 332.5mm ▲여수 284mm 등 전남에 평균 119.2mm의 집중폭우가 쏟아졌다.

광주는 32.4mm의 비가 내렸다. 지난 2일 광주·전남에 발효된 태풍경보·주의보는 3일 오후 5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2명 사망·1명 실종·피서객 고립= 3일 오후 1시40분께 광양시 금호동 금호대교 아래에서 30~50대로 보이는 남성 시신 한구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5시50분 완도군 신지면 양식장에서 김도(41)씨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철재 출입문에 받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번 폭우로 실종되거나 피서지에서 고립되는 일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구례군 구례읍 문척면 한 다리에서 박모(33)씨가 실종됐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엔 구례군 토지면 연곡사 인근 계곡에서 피서객 임모(39)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으나 20분 만에 구조됐다.

◇곳곳 침수·유실=광주·전남에선 지난 사흘간 내린 폭우로 침수·유실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임동 KIA 쉼피언스필드 지붕 패널(가로 1m·세로 3m) 17장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광산구 임곡동·운남동과 동구 금남로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이 일대 도로가 한때 통제됐으며,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께 남구 사동 조모(50)씨의 1층 주택 조립식 패널이 강풍에 날아갔다.

이날 오후 3시 보성군 겸백면 도암마을이 10가구가 침수되면서 주민 2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완도군 소안도 북안도리가 강한 바람과 파도에 40m가량 유실됐다.

지난 사흘간 내린 폭우로 전남에선 농경지 1720ha와 염전 131ha가 침수됐으며, 보성과 광양 등에서 주택 20채가 물에 잠겼다.

◇또 다른 태풍 '할롱' 북상=태풍 '나크리'가 서해상에서 소멸했지만, 새로운 태풍 '할롱'(HALONG)이 오는 8일께 서귀포 남쪽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이번 태풍 할롱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행기자 golee@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산대학교 062)605-0956

금호아시아나 모태기업 금호고속 되찾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2012년 금호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한 모태 기업 금호고속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고속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는 최근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를 주관사로, 안전회계법인인 회계자문사로 선정해 매각 제한이 풀리는 이달 중 금호고속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호고속을 인수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우선매수협상권을 갖고 있는 금호터미널이 꼽히고 있다. 금호터미널은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모태인 금호고속을 다시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2년 전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지분 100%와 대우건설 지분 12.3%,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7% 등 핵심자산을 묶어 9500억원에 매각할 때 금호고속을 다시 인수하기 위해 2년간 매각유예와 우선매수권을 조건으로 삼았다. 금호고속 우선매수협상권은 이후 금호터미널로

소유 펀드 이달 매각 착수 "우선매수권리" 연내 인수 5000억으로 편 몸값 부담

넘어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그동안 선전이 세운 금호고속을 다시 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터미널은 지난해 광주신세계에 백화점 건물과 부지를 20년간 보증금 5000억원에 장기임대해 금호고속을 인수할 자금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금호고속 매각을 앞두고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호고속 매각가가 5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 같은 금액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가 금호고속을 인수했을 때 가격이 334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른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고속은 그룹의 모기업이므로 다시 사오는 것을 전제로 팔았고, 경영도 우리가 맡아서 해왔다"면서 "금호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의 장기 부지임대계약으로 자금도 확보돼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올해 안에 인수를 매듭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기술금융의 시대가 열립니다!

혹시 당신의 기업,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기술신용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온라인 대출을 비롯한 금융기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숨은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기술금융!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현의 원동력입니다.

- 기술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기술신용평가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보도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기업금융나눔목 홈페이지(http://www.smefn.or.kr)를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 한국정책금융공사 02)6922-6800, 6893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KOFCA KOREA FINANCE CORPORATION